

머리말

안동교회 여전도회는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인 1913년, 서울 북촌의 양반 교회였던 우리 교회 안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저 외딴 곳 서북의 한 시골 교회에서 한국 최초의 여전도회가 세워진 지 15년 만의 일이었으며 한국의 심장부이자 한국 선교의 거점인 서울, 그 중에서도 나라의 앞날을 염려하며 도모하던 한국의 지도층들이 모여 살았던 서울 북촌에 본 교회가 창립된 지 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의 설립이 한일 합병 직전인 1909년의 일이었다면 우리 교회 부인회의 설립은 한일 합병 직후인 1913년의 일이었습니다. 학교와 교회를 세워 위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자는 구국의 신념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면 우리 교회 여전도회는 그 망국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구국, 신앙 구국이라는 본 교회의 창립 정신은 식민시대에 시작된 안동교회 부인회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그러나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경제적(經世的) 신앙으로 실현되어 갔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회의 설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평신도 세 분 즉 유성준, 박승봉, 김창제는 모두 교회 설립과 나란히 학교를 설립하고 청년들을 교육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1910년에 우리 교회 초대 전도부인으로 부임한 이신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년 주일학교의 설립이었습니다. 망국의 그 해에 어린아이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교육, 육성하는 길만이 망해 없어진 나라를 되찾되 기독교 신앙의 반석 위에 정초시킨다는 경제적 신앙을 우리 교회 초대 전도부인은 간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신실이 1909년 본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 이름을 올렸던 다섯 명의 여성 교우 중 한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교회 바깥에서 부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부인 교우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신실이 교우로 있다가 전도부인으로 추대된 사실은 그가 여성 교우들 중 지도자적 위치에 속했던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부인 교우이자 여성 지도자 이신실이 품었던 비전은 아직 조직은 없었으나 바로 우리 교회 부인회가 품었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정신

의 반석 위에 새로운 한국을 정초한다는 크나큰 비전이 바로 우리 교회 부인회가 처음부터 품은 대망이었고 이후 계속해서 이 원대한 꿈을 향해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해갔음이 일제 하 우리 교회 부인회의 활약을 통해 명증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년 주일학교를 통한 어린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1923년 우리 교회 부인회가 주도하여 설립한 안국유치원을 통한 유아들의 교육, 이들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의미심장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1915년 발표한 <개정 사립학교규칙>은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종교의식을 엄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식민지 한국의 초등 중등 교육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기독교 미션계 학교의 통제와 말살을 목표로 한 것이었음이 명백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심비(心碑)를 온통 총독부의 반기독교, 최소한 비기독교 교육으로 채워가겠다는 반기독교적 획책이었습니다. 그런 정황에 노출된 유아, 유소년들을 주일학교와 교회 유치원에서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시켜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워간 것이 바로 우리 교회 부인회가 내디뎠던 역사적 거보(巨步)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인 회원 유각경이 주도한 조선 여자 기독교 절제회 연합회의 금주 단연 운동은 식민지 청소년들의 육체와 마음을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정신으로 온전하게 지켜냈던 거국적 공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양반 교회 부인회의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정신의 교육 열의는 1920년부터 시작된 여자 약학원과 부인 약학회의 운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자녀와 후대를 양육할 크리스챤 소녀와 어머니를 양성함으로써 기독교 가정이라는 독립된 근대 한국의 뿌리를 튼튼하게 배양하는 일에 힘을 다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여전도회 생활을 통한 민주적 자질 함양과 훈련, “예수 믿는 어머니”라는 새로운 기독교 여성상의 구현을 도모했습니다. 초대 부인회장 이범숙의 재임 시기부터 벌써 월례 회의와 특강 등을 통해 교회 생활의 민주적 소양을 훈련하였으며 그것이 교회봉사와 사회봉사에서 진취적 기상과 창의적 활동으로 발현 되

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 기개는 외유내강(外柔內剛)의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회는 분열과 갈등의 현장에서 화해자로 서 있었고 손 뻗어 도움을 구할 힘조차 없는 이들을 찾아가 하늘의 위로를 전했던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한국과 세계에서 우리 안동교회의 “예수 믿는 어머니”들의 활동은 이토록 쉴 줄을 몰랐습니다.

한편 우리 교회 여전도회는 교회 생활의 충성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이를 모범적 전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 교회의 창립 교우 12명 중 이신실을 포함한 5명의 여성 교우는 1929년 본 교회 창립 20주년 근속 교우 명단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교회 여성 교우들의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본 교회 여전도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굳혀지고 계승되어 왔습니다. 가령 1960년대를 전후하여 우리 교회가 기장과 예장의 분열에 휩쓸려 소용돌이칠 때, 그리고 1970년대를 전후하여 본 교회 당회의 현격한 위축으로 교회가 중심을 잃고 휘청 거릴 때, 교회를 지켜낸 사람들은 바로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신앙의 자리를 지켜오되 예수 믿은 사대부 부인들의 진취적 기상과 겸양, 예의범절과 교회 봉사, 투철한 민주의식과 훈련된 인간상은 위기에 빠진 교회가 손 뻗어 붙잡았던 소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 노권사님들과 그들이 가르친 청년 장년들, 그리고 그들이 양육한 자손들이 선대와 나란히 신앙 계승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굳건하게 지탱해갔던 것입니다.

또한 안동교회 여전도회는 시대적 기상을 판독하는 일에 민감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팎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사회적 여성 지도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어서 도처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안동교회가 여성을 위해 한 일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웠고 안동교회 여성 교우들이 해방 전후의 한국 사회와 대한민국 건국 후의 우리 조국을 위해서 혼신한 일들은 차고 넘칩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각자 처한 기독교 가정을 지탱하는 신앙의 보루로서 가족을 섬기며 기도한 일은 한국의 기독교적 방향 조정과 그 체질화에 다함없는 공로로 기록되어 마땅할 것입니다. 이 기독교 가정이 기독교 한국을 이루는 기초였기 때문입니다.

1954년 이후 2014년 현재까지 안동교회 여성 제직으로 기록된 여성 교우들의 수는 720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1913년 안동교회 부인회의 발족 이후 2015년 현재까지 여전도 회장으로 이름을 올린 분들의 수는 89명에 달합니다. 또한 1910년 초대 전도부인 이후 2015년 현재까지 우리 교회 역대 전임 여교역자는 총 16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숱한 여성 교우들이 안동교회 여전도회 100년의 역사를 알알이 구슬로 엮고 있습니다.

이 한 분 한 분의 손과 발을 통해 주님의 몸 된 교회인 안동교회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있음을 감격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헌신, 예배와 봉사,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개인생활과 교회생활을 통해 우리 주님의 구원하시는 복음이 전파되어 갔음을 감동으로 증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무익한 종들입니다.

주여, 저희 무리를 궁휼히 여기사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소서.

주여, 작은 일에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주의 여종들을 이 세상 끝 날까지 불들어주소서.

주여, 면류관을 벗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날 세세무궁토록 우리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 책에 수록된 각 시기의 연표 등은『안동교회 90년사』와『사진으로 보는 안동교회 100년』에 주로 의거하고 있음을 별도 명기합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기도와 사랑으로, 도움과 격려로 동행해 주신 고마운 분들을 떠올립니다.
우선 안동교회 여전도회 화보발간위원회의 위원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계명의 권사님, 한빛 여전도회의 위원 송영자 권사님, 민기숙 권사님, 이주영 장로님, 한샘 여전도회의 위원 김혜자 권사님, 조정순 권사님, 한길 여전도회의 위원 양은선 권사님, 정영란 권사님, 박정희B 권사님, 김민수 권사님, 그리고 한사랑 여전도회의 위원 박진령 피택권사님, 김미정 집사님이 그 분들입니다. 사진의 수집과 정리, 사진의 사건, 일자, 인명의 표시, 주보 여전도회 기록의 발췌, 각 지회와 여전도회 전체의 역사 자료의 수집 등 열성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부족한 사람에게 안동교회 여전도회 백년의 역사서 집필의 중책을 맡기셨고, 책을 집필하는 과정 내내 한결 같이 집필자에게 무조건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일 책을 펴내는 과정에서 겪었던 지난한 시간을 동행해주신 위원장 계명의 권사님과 박진령 피택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행정적인 도움을 주신 교회 사무실의 오정훈 간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서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출간되도록 장정과 편집, 레이아웃과 교열에 애써주신 한들 출판사의 임규열 편집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멀리서 묵묵히 격려해주셨던 유경재 원로목사님, 황영태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인이 되신 민대홍 원로장로님 그리고 위원이셨던 고 이종선 권사님의 기도와 격려도 잊을 수 없습니다. 부족하기 만한 제자를 아끼시고 늘 기도로 지지해주시는 스승 민경배 박사님의 격려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기꺼운 마음으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는 남편 이동호 안수집사와 아들 재영 군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무악재 서재에서

昭汀 柳錦周 識